

큐티가 살면 설교가 산다

— 침묵기도와 렉시오 디비나 방식의 깊은 침묵 큐티

| 하정완 목사 pastorha@nate.com 꿈이있는교회 담임 KOSTA강사

리차드 포스터가 그의 책 "영적훈련과 성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저주다. 즉각적인 만족을 가져다주는 가르침이 하나의 주된 영적 문제다.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수의 지성인이나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깊이있는 사람들이다."

기독교 지성의 상실

피상적이다! 언제부터인가 신앙인의 모습이 세상에게 가벼워 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가벼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것, 사라질 것, 곧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어 세상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박하기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이같은 현상을 헤리 블레마이어스는 "기독교 지성의 상실" (Harry Blamires, The



Christian Mind, Servant, 3)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기독교 지성의 상실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였고, 결국 크리스천과 교회의 세상화를 이루고 만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생각과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였고, 공공연히 "부자되세요"를 예배시간에 하여도 전혀 괜찮게 되었습니다. 성공이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절대적 축복의 개념으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가난함, 겸손함, 섬김, 사랑, 희생, 절제, 단순함등의 단어들은 언제부터인가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용어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크리스천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만큼 되었습니다. 이미 세상의 생각이 교회의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득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생각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자기 편의적인 해석으로 흐를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피상성이 일반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 읽기도 위험한 수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말씀읽기와 듣기입니다. 결국 묵상없는 말씀읽기와 듣기에 머무를 때가 문제입니다. 만약 깊이있는 묵상없이 읽기와 듣기를 한다면 언제부터인가 말씀에서 부적같은 효과거나 하루 재수보기 정도의 말씀으로 수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후10:3-5)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바로 존 스토틀가 얘기하는 "생각의 싸움"을 말합니다. 곧 기독교지성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어느때부터인가 기독교지성의 깊이가 얕아져서 쉽게 세상지성이 넘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빈치코드, 도올 김용옥부터 시작

해서 심지어 이단적 논증들 앞에서 기독교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만큼 기독교 지성이란 없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TV에서 떠들어대는 가벼운 세상 지식 앞에 교회나 크리스천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얘기한 것처럼 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분별력은 지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김세운 박사가 하는 얘기중에 재미있는 이야기, 말죽거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이야기에 심취해있던 어떤 어머니가 자기 동생과 함께 믿음을 시험했답니다. 하나님은 살려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지성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같은 무분별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쉽게 TV 등 세상의 얘기 앞에 솔깃하는 것은 지성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가오는 세상의 도전앞에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12:2)

Don't become so well-adjusted to your culture that you fit into it without even thinking. Instead, fix your attention on God. (Message 12:2) 너희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너희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함으로 그 문화에 딱 맞게 어울리는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너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라.

이미 우리는 아무 생각없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성이 없는 기독교,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천박해지고 가벼워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는 것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깊은 묵상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에 기초한 묵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의 깊은 지식에 이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묵상자료들로 도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말씀의 위치를 살피고 그 위치에서 말씀의 묵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교과서적인 지식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이론이 능통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낚시를 말할지라도 낚시질을 직접 해본 사람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식을 건조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큐티는 단순히 건조한 지식을 더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가 성경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들은 말씀과 성경공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건조한 것이 되었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했을 때 바울을 쓰기도 하고 베드로를 쓰기도했을지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틀리지않고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까? 신앙이 차이가 과연 있을까요? 차이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그 지식이 나의 삶과 전혀 연관되어 살아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성경적 단순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되지 않은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성경공부는 그만해도 될 지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의 어떤 성도들보다 100배는 더 성경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보다 100배는 더 비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지식보다 성경이 말하는대로 사는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듣기부터 시작하라

그렇다면 왜 그토록 열심히 성경공부를 했고 수많은 날동안 큐티를 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건조한 지식의 습득에만 전념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지식의 엘리트는 되었을지는 몰라도 참된 성경의 사람이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전제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듣기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 듣기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 낮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명령을 쉼마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그 처음 시작은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신6:4)

"들으라"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쉬마"의 명령형으로 "쉐마"라고 음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쉼마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공부, 성경연구, 심지어 큐티조차도 능동적인 의미에서 묵상이 주된 내용이었습니 다. 듣는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듣는 것이 없이 많은 지식들이 쌓여 뚝뚝해졌는지는 몰라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자신은 듣는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듣는 것, 그것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삶이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심각한 청각장애를 겪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듣지 못하거나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말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만들어진 옛사람이 갖고 있는 필터로 읽고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의 거짓 자아가 하고 있는 숨은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그릇이 문제인 것입니다. 많이 들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흘러보내는 그릇이 문제이고 필터가 문제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듣기의 핵심은 다른 말이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수없이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생각이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언제나 자기 연민에 기초한 생각들이 말씀을 필터링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숨은 동기를 지닌 거짓 자아가 말하는 음성을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내적 침묵기도의 자리이고 멈추지 말아야 할 훈련입니다.

지식의 종류

자, 큐티는 읽기가 아니라 듣기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지식이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듣기는 지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식의 깊이 에 따라 듣기는 더욱 큰 힘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날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였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부도났다. 당분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한다.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자."

이같은 아버지의 말에 대하여 모든 자녀들이 들었을지라도 지식에 따라 달리 들었을 것입니다. 갓난 아이는 아예 들을 체계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5살난 아이도 들었고 안 것처럼 보였지만 금방 반찬 투정을 합니다. 11살 먹은 아이도 아버지의 말을 들었지만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는 독법은 고등학생 아이 그리고 대학생 아들이 듣는 것까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식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듣는 방법은 그 사람의 지식 정도와 관계가 있으며 그 지식은 그 사람의 성숙 정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려는 지식의 종류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지식은 매우 다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얻은 사람들의 지식입니다. 그 정보는 왜곡될 수도 있고 과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지식은 과장, 왜곡, 축소가 난무한 것입니다. 전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을만큼 그 지식이 일천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얻은 지식입니다. 경험적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현저하게 과장과 왜곡은 줄어들지만 일회적인 지식이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는 지식입니다.

셋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고 경험하며 지냈던 제자들의 지식입니다. 물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지식입니다. 하지만 미숙한 지식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 이전의 지식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곡될 수없고 과장할 수 없는 분명한 지식이지만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넷째는 지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지만 미숙한 지식 상태에서 깨달음이 온 지식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지식이 그렇습니다. 그 깨달음에서 나온 지식은 단순 경험이 아니라 깨달은 지식입니다. 물론 이 주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16:17)

분명히 이 지식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온전하지 않은 것은 육체의 영향을 받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적인 지식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므로 흔들렸고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다섯째는 지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이며 영적인 지식의 더 깊은 차원입니다. 이것을 굳이 얘기한다면 "에피그노시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디



베랴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경험한 지식을 말합니다. 주님은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주님은 매우 정확하게 육체를 이해하셨고(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 매우 정확하게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네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들의 영적 상태, 깊은 속사람까지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던지신 세 번째 질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Σίμων Ιωάννου, φίλεις με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ἐλυπήθη ὁ Πέτρος ... λέγει αὐτῷ, Κύριε, πάντα σου;
οἶδας, σὺ γινώσκεις ὅτι φιλῶ σε.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대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할 때 "기노스코" 동사를 썼지만 전체 문맥상(모든 것을 아시오매 εἶδω) "에피기노스코"의 의미로 썼습니다. 주님의 마음까지 이해한 지식을 주님의 지식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온전하게 주님을 위해 육과 혼이 제어되어 움직이는 상태는 아닙니다.

여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지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지식의 깊은 차원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깨달음입니다. 사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베드로처럼 제자처럼 되지 않았습니니다. 오순절 성령이 그 성령체험이 되게 된 것은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깊은 지식을 체험하였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그들은 깨달음의 완성에 이른 것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즉 영과 혼과 육이 상호적으로 통치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시편 62편)

그러므로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만남 정도로 끝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임재의 강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성장은 결단 그리고 실천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결단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지식이 언제나 우리를 정체시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부터 차근차근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이신 말씀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한다고 해서, 혹은 한달 정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성이 갑자기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인격이라면 성숙과 이해가 되는 지식은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깊은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가 없이, 그리고 매순간 깨달아진 경험없이 우리의 지식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침묵기도와 렉시오 디비나로 하는 큐티의 실제

큐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설교말씀을 듣는 것이나 해석된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읽고 묵상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은 그 자체가 인격적이시며 스스로 일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적 침묵기도(Centering Prayer)

5분, 10분, 20분등 자신의 수준에 맞게 먼저 내적 침묵기도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행동하지 않고 내면의 하나님을 집중하는 기도(centering prayer)를 침묵함으로 드립니다. 이같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의 욕심과 세계관에 지배되어 있는채 색안경을 쓰고 말씀을 보는 것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오랜 수련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큐티를 위한 선행조건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조차 무엇을 얻으려는 숨은 동기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숨은 동기에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가능성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 안에 꿈틀대는 숨은 동기로 가득한 거짓자아를 벗겨내서 온전하고 진실한 영적 자아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숨은 동기에 지배받은 거짓자아의 만족을 구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읽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짓 자아를 벗겨내고 참 자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까지는 오랜 수련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큐티를 위한 선행조건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일반적인 책처럼 읽으려고 한다면 잘못된 태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도 문제있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묵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렉시오(Lexio) 읽기

말씀을 읽는 것은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함으로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 강하게 다가온 말씀을 적습니다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였다면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묻는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함으로(anticipate) 매우 의도적으로(intentionally) 천천히(slow) 생각하면서(think) 소리 내어 읽습니다.(read) 평상시에 읽던 속도보다 2-3배정도 느린 속도로 읽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강하게 다가온 구절을 오늘의 말씀 쪽지에 적습니다. 이때 구절은 한 번에 생각이 날 정도로 짧은 구절로 좁혀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메디타치오(Meditatio) 묵상

오늘 받은 말씀을 수행쪽지에 쓴 후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반복해서 읽고 생각함으로 묵상합니다.

우선은 오늘 받은 말씀을 오늘의 말씀 쪽지에 쓴 후 그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반복해서 읽고 생각함으로 묵상합니다. 이것이 메디타치오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묵상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신 “구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더 깊은 연구는 듣기를 더 폭넓고 깊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못된 해석과 묵상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6장 14-29절을 본문으로 읽다가(렉시오)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을 만났다고 합시다.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묵상자는 이 2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기만하면 다 주겠다”는 음성이었습니다. 순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잘못된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헤롯왕이 자신의 비난받는 아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살로메는 어머니 헤로디아의 요청에 따라 세례 요한의 목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묵상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 둘러싸고 있는 문맥을 살피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편의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에서도 놓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맥과 전체 연구를 통한 묵상은 자신에게 주신 말씀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라치오(Oratio) 기도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기도를 요청할 것입니다. 회개, 감사, 찬양, 중보 혹은 공훈의 기도등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그 즉시로 어디서든지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말이고, 그분의 뜻을 이해할 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일방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아닌 말씀하심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회개가 나올 수 있고, 어떤 때는 감사와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혹은 강력하게 중보기도와 공훈히 여기는 기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는 미리 계획된 기도가 아니라 말씀 묵상을 통해 그때 그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시는 제목이기에 기도는 깊이있는 기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쫓지 묵상을 하다가 어디서든지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컨템플라치오(Contemplatio) 관상기도 쉽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과 안식을 줄 때가 옵니다. 그때 그 말씀의 평안함에 거하는 것이 섬 곧 컨템플라치오입니다. 혹은 메디타치오 즉 묵상할 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서 기도(오라티오)할 때 하나님이 안식과 위로 혹은 평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편안히 쉬는 것이 컨템플라치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상은 이냐시오(Ignatius de Loyola)가 말하는 관상과는 약간 다른 것입니다.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서 관상은 두가지를 내포하는데 하나는 "내가 관상하고자 하는 사건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과 함께 "그 장소를 가상해서 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관상의 대상을 시각화하고, 그것을 상상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처럼 그 명상의 대상이 지니는 세세한 부분을 깊이 관찰함으로써 그 대상을 자기 속에 체화體化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그런 경우입니다. EWTN이라는 미국 가톨릭 방송에서 멜깁슨과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멜깁슨은 어느날 폐쇄되는 교회의 도서관을 사서 어떤 책을 보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책이 떨어져서 보니 에머리히 수녀님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멜깁슨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에머리히 수녀 정확하게 말해서 앤 캐서린 에머리히(1774-1824)수녀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를 관상기도 중에 목격,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기록이 쓰여진 책이 "그리스도의 수난"입니다. 멜깁슨은 그 기록들을 마치 사실처럼 취급하였고 성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구성하는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관상은 그같은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서 나오는 관상이 아니라 하나님안에서의 쉼, 그런 의미에서 관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락시오(Praxio) 실천

말씀을 따라 실천합니다





말씀 읽기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게 됩니다. 그 마음을 읽으면서 드리는 것이 기도(오라치오)
이고, 그 기도에 깊이 참여할 때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프락시오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아서(렉시오) 깊이 묵상하면(메디타치오)
당연히 "사랑에 대한 기도"(오라치오)가 나올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을 닫고 용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심이 생깁니다.(컨템플라치오) 이어서 사랑하
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프락시오인
것입니다.

리더는 코치여야 한다

| 이규창 코치 kcleee1010@hanmail.net 모그에듀케이션 코칭연구소장 한국코치협회 부회장

강점을 키워주는
크리스천 코칭

2010. 1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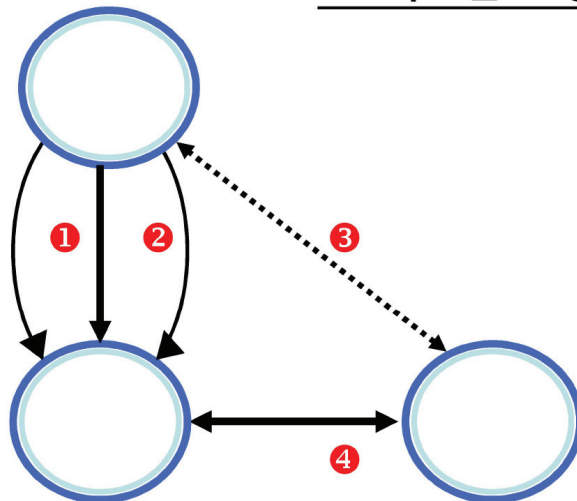
강점 리더십의 철학

약점을 고쳐서
챔피언이 되는 법은 없다.

강점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챔피언이 되는 정석이다.

101

크리스찬 코칭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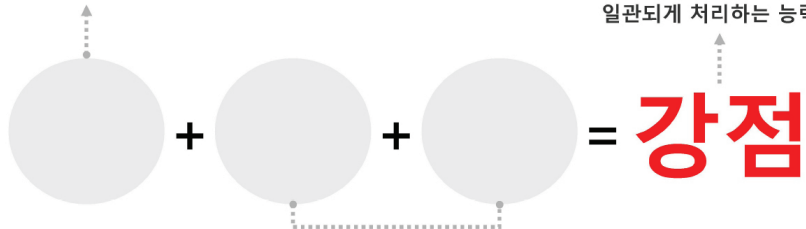


크리스찬 코칭의 철학

- ① 하나님이 당신께 영광 돌리는 을 주셨다.
- ②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을 주셨다.
- ③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 ④ 코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즉 도구로 쓰임 받으며, 성도가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다.

- 천부적이며,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
- 누구에게나 있다.
- 강점을 만드는 기본 요소

한 가지 일을 완벽에 가까울 만큼
일관되게 처리하는 능력



- 학습과 경험으로 습득된다.
- 재능에 기반해야 강점이 된다.

여덟 가지 다중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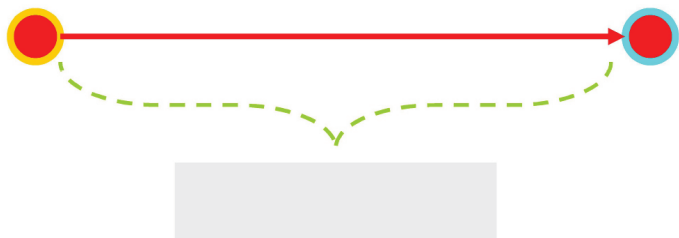
- 언어 지능
- 음악 지능
- 논리수학 지능
- 인간친화 지능
- 공간 지능
- 자기이해 지능
- 신체운동 지능
- 자연친화 지능

103

코칭은 갭 줄이기

현재

목표



당신은 지금 목표 대비
어떤 상황에 놓여있습니까?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장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coaching partnership



당신(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청 스킬

- 말의 [] 을 놓치지 않는다.
- [] 를 그대로 기억한다.
- [] 를 파악한다.
- 자신이 경청한 것을 요약해서 말해준다.



완벽한 경청 태도는?

- 상대방과 눈을 맞춘다.
- 말을 중간에 끊지 않는다.
- 전화를 꺼두거나 받지 않는다.
- 몸을 앞으로 약간 기울인다.
-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호응한다.
- 적절한 질문을 한다.

105

■ FEEL? _____

■ LEARN? _____

■ DO? _____

HOMEWORK

맡겨주신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
내 <강점>을 어떻게 더 강화할까?



양육체계 다지기

| 최용태 목사 human0113@hanmail.net 前 한사랑교회 청년담당 現 강서지방 오곡교회 담임

청년사역을 시작한지 13년을 지나고 있다. 그동안 땀도 많이 흘렸고, 동시에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 생각한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였다. 나 스스로가 청년 사역자로 결단하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청년사역자로 세우셨고, 나는 그 부르심(Calling)과 세우심에 순종하였던 것이다. 지난 13년이 목회자로서도 가장 젊은 시기였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였던 시기였다. 아쉬움은 없다. <청년사역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과 <앞으로 청년사역을 어떻게 해쳐 나갈 것인가?>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도제목이다.

청년사역이 반드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다음세대인 청년들을 말씀과 기도로 키워내지 못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필자는 지난 13년간의 청년 사역의 경험과 방법, 그리고 필자 나름의 원리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전체 세부분 나누어 이야기 할 텐데, 첫째는 청년 부흥





리포트 이고, 두 번째는 양육 시스템의 변화, 세 번째는 청년사역자의 원리를 이야기할 것이다.

필자의 청년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일 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판단의 실수를 가져왔던 적도 많았음을 미리 이야기 해두고 싶다. 좋았던 경험들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 두고 싶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리더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또 필자의 부흥 경험은 <대전> <서울>이라는 도시적 배경과, 이미 중형교회라고 하는 제한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둔다. 그러나 방법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의 원리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

1. 청년 부흥리포트

① 예배가 살아야 한다.

첫째, 예배의 개발!

둘째, 찬양 팀의 전문화!

셋째, 말씀과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말라!

② 조직의 변화는 무죄!

③ 리더십 교육은 부흥의 시작이다. (회장단)

④ 청년 새내기는 포기하지 말라!

첫째, <고3 리더>를 선발하라!

둘째, 청년 새내기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켜라!

셋째, 청년 새내기들을 즐겁게 해줘라!

넷째, 교회학교 교사 시키지 말라!

⑤ 의미 있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하라!



⑥ 사역을 개발하라!



2. 양육 시스템

GBS

GBS + Q.T

WORVEST 예수 제자 학교

NLTC

새가족 양육

Cell Group Meeting 교재

3. 청년 사역자

1. Junior Pastor

- 하나님은 준비된 사역자를 사용 하신다.
- 영적인 탁월함을 추구하라!
- 자신만의 매력을 관리하라!
- Visionary로 살아라!
- 은사대로 사역하라!
-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 계획성 있는 시간의 헌신을 드러라!
-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2. Leadership

- 경청하는 습관을 길러라!
- 동기 유발을 일으키라!
- 리더의 열정을 보고 따라온다.
- 〈Men to Men〉을 두려워하지 말라!
- 리더는 내일을 사는 사람이다.

3. Coaching

- 〈일〉이 아니고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라!
- 사람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일으키라!
-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고 하도록 지원하라!
-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라!
- 격려와 통제를 적절하게 섞어야 한다.



4. Community

- 공동체를 장악하라!
- 쌓이는 점수는 무너지지 않는다.!
- 공동체는 생명체다! 변화를 감지하고 대처하라!
- 비판적 아웃사이더를 조심하라!
-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말라!

5. Revival

- 기도와 눈물은 부흥의 원자재이다.
-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 부흥의 필요조건
- 같은 곳을 향해 나가라
- 하나님의 선물이다.

부흥하는 공동체

Luke 마음 열기

- ① 한 주간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 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야기 해봅시다.
- ② 주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나 능력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야기 해 봅시다.

Luke 경배와 찬양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Luke 기도

셀 모임을 통한 성령의 역사와 셀의 부흥, 그리고 11월 7일의 500명의 청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전도와 초청에 집중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함께 통성 기도 후에, 기도 순서를 맡은 이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Luke 본문 읽기 _ 누가복음 17:1 - 10

부흥하는 교회와 공동체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와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고, 사람들의 모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





나눔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필수적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과 목회자의 선포에 순종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즉 말씀을 통하여 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 주십니다. 또 상식과 지성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관한 말씀은,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이고, 새신자에게 민감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문화를 누리려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닌, 친한 사람을 만나는 친교의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영혼구원의 열정이 빠진 문화행사는 말 그대로 행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영혼구원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신자가 왔는데 아무도 인사해 주지 않는 공동체는 안 됩니다.

Luke 본문 살피기

1.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2. 연자 멧돌을 매고 바다에 던져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2절)
3.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 - 4절)

4.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하소서>라고 할 때,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6절)

5. 종이 할 일을 다 한 후에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10절)

Luke 나누기

1. <실족하게 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2. <작은 자 중의 하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차라리 그 작은 자에게 연자땀돌을 매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실 때,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3.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4절 말씀에서 <만일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 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이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4.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해 봅시다.

5.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종>으로서,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Luke 적용하기

1. 한사랑 청년공동체가 부흥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2. 당신이 신앙이 다음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고 싶은지 이야기 합시다.
3. 11월 7일 500명의 예배를 위해서 전도와 초청을 결심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이야기 합시다.
4.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Open Cell Day>를 하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안보이던 기존의 청년 회원이나 아직도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있는 친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입니다. 우선 날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이어도 평일이어도 무방합니다. <잃은 양>을 모든 셀 원들이 정하시고, 잃은 양을 찾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날의 특별 순서도 준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Open Cell Day>를 통하여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5.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공동기도제목 ● 청년부의 성령 충만

- 10월 30일 양천지방 찬양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Open Cell Day의 결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 11월 7일 500명의 예배인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 14:23]

청년사역 해법을 찾아라



메모의 힘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오래간다.

These commandments that I give you today are to be upon your hearts,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Talk about them when you sit at home and when you walk along the road,

when you lie down and when you get up,

Tie them as symbols on your hands and bind them on your foreheads,

Write them on the doorframes of your houses and on your gates.

Deoutronomy 4:6-9

제4기 청년목회 전문훈련과정

퍼낸날 : 2010년 11월 15일

퍼낸이 : 신경하

엮은니 : 이화식

편 집 : 정현범 02) 399-4371

홈페이지 : <http://www.kmcedu.or.kr>

이메일 : kmcedu@chol.com